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 이주민 (잠 27:8)

샘 밀러(Sam Miller)가 집필한 <이주민: 우리 모두의 이야기(Migrants: The Story of Us All)>에는 인류사회 전반에 걸친 이주의 역사가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난민, 망명 신청자, 망명자, 무국적자, 실향민, 불법 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들이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볼지 통찰을 제시한다. 샘 밀러가 이야기하는 이주는 다음과 같다.

이주는 정체성, 민족성, 종교, 고향에 대한 생각, 애국심, 향수, 통합, 다문화주의, 안전, 테러리즘, 인종차별 등과 관련이 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유목민이 한곳에 정착해 가는 문명화의 과정으로 요약한다. 심리학자 그렉 매디슨은 이주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주민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동한 사람이며, 충분한 기간 동안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도록 도전을 받는 사람이다." 이주 경험이란 노예, 난민, 외국인, 구직자, 정복자 등 시대와 신분을 넘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타국으로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본국 안

에서 먼 거리를 여행한다. 이주민을 향한 사회의 태도는 대체로 일관적이지 않다. 정치인들은 이주에 반대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 프리슈는 그의 희곡에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는 구절을 썼다.

인간은 '유랑 욕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4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은 유목민이었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출신의 탐험가들은 세계 곳곳의 섬과 남아메리카로 향하여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1493년 알렉산더 6세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서 신대륙을 분배했듯이, 가톨릭 교황들은 대륙 전체를 특정 왕에게 할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원주민들이 소수가 되거나 전멸하는 동안 유럽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동의한 것과 다름없었다.

저자는 성경을 '이주의 일기' 또는 '이주 핸드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성경 속 인물들은 이주민으로서 에덴에서 쫓겨나 홍수 이후 다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홍해를 건너 예비된 땅으로 이주하고, 메소포타미아

로 추방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도록 유인하셨다. 모세는 그의 생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이주민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주해야 했으며, 모세의 율법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구약성경은 출애굽과 바빌론 포로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위대한 이주 역사를 보여준다. 바빌론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있는 인종의 용광로였다.

한편, 역사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주로 지중해와 흑해 주변의 해안 도시에 270개 이상의 새로운 독립적인 정착지를 건설했다. 아테네는 이주민들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더라도 시민권을 받지 못했으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고 투표도 할 수 없었다. 저자는 또한 인도인들의 이주 역사와 어원학자들의 의견을 빌려 원래 '아랍'이라는 단어가 '유목민'을 의미하고 공유된 이동 생활 방식의 의미를 지녔다고 주장하며 아랍인들의 이주를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슬람교도들의 이주와 바이킹으로 알려진 북유럽 사람들의 이주를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노예제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이야

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주 역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편, 중국인 이주민들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필리핀 마닐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싱가포르의 1819년까지 무인도였지만, 오늘날 500만 인구의 4분의 3이 중국인이라고 자처한다. 19세기 말까지 중국인 공동체는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주민을 '게스트 노동자'라고 부른다. 이는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전제한 표현이다. 유럽의 이전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인터넷이 새로운 디지털 유목민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역사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편견이 내재하여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주민으로서, 이주민의 후손으로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본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샘 밀러의 글을 반추하며, 5월호에 주변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KMC)의 국내 이주민선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주민선교위원회 위원장
안산다문화선교센터 대표
서안산시온교회 담임



글

이창갑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 Methodist Church, 이하 KMC)는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웨슬리의 신학을 토대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아나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그래서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고, 인종과 국적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선교 정신은 해방 이후 70년대 산업선교로 이어져 왔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의 선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후, KMC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주민 선교에 공헌한 곳은 아마도 경남 이주민센터(이철승 목사)이다. 이철승牧사는 1998년부터 경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지킴이와 피난처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

에 부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김봉구 △천안 하늘중앙교회 다문화센터/유영완 목사 △금촌 외국인노동자선교회/박예식 목사 △부천 이주노동자복지센터/송연순 △포천 이주민센터/김달성 목사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발한 선교를 펼치고 있다.

KMC의 이주민 사역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한 부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목회하는 지역교회이다. 이들은 주로 예배와 복음전파 그리고 제자화하여 역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주로 센터나 복지관을 위탁받아 한글 교육 및 각종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 사역이 있다. 현재 이주민 교회와 기관을 합하면 100여 곳에 이른다. 그동안 각 교회나 기관별로 사역하다가 교단에서 2015년 11월 본부 선교국 산하에 '이주민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좀 더 체계적인 이주민선교와 선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이주민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탐방을 하면서 이주민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역을 컨설팅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 시행



▲ 감리회 이주민선교 컨설팅이션

을 앞두고 '다문화시대의 선교전략'이란 주제의 정책 세미나와 선교국 주관으로 '국내 이주민선교 학교'도 개설하게 되었다.

지난 2021년 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감리회 세계선교의 지형과 전략에 있어서 크게 기대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이주민선교사' 제도의 신설이다. 2017년과 2019년 입법 개정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셨던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의 신설은 지금까지 세계선교의 공간을 "해외(국외)"로만 국한했던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을 '세계선교사 관리규정'으로 대체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이주민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을 '땅끝', 즉 새로운 선교지로 인식하도록 선교의 지평과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국내이주민선교사는 만 60세 이하 전·현직 선교사로서 8년 이상의 선교사 경력자가 지원이 가능하며,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아직 보완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해외선교사 경력이 없어도 한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을 담당해 온 분들도 있는데, 이

들은 아직 국내이주민선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여 차후에 이들도 국내 이주민선교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며 선교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들을 단지 개종의 대상이나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도 과거 제국주의의 선교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6월호는 고신교단이 실린다.

NCOWE 제1차 프리컨설팅이션 5면

이주민 사역자 리포트 6·7면

"하나님의 다민족·다문화 디아스포라 선교 계획은?" 8·9면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 10·11면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A CONSULTATION ON DI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인터뷰] 송도 글로벌하모니교회 칸 아킬 담임목사

송도 글로벌하모니교회는 인천순복음 교회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선교사역 공간(글로벌하모니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공간은 교회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 장소이자 친교의 장소로 쓰인다. 또한 주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변에 거주하는 무슬림 다문화가정을 위한 거점 전도 장소이다. 이에 본지는 글로벌하모니교회를 담임하는 파키스탄 출신의 칸 아킬 목사를 찾아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칸 아킬 목사

나는 파키스탄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초기 자금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다. 처음에는 한국에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고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거듭되는 친구의 권유로 한국에 오게 됐다. 나와 친구는 여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듯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하지만 친구는 힘든 한국 생활 끝에 결국 한국을 떠났다. 12시간의 고된 노동이 가장 힘들었고, 언어의 어려움과 추운 날씨, 그리고 예의 없는 한국인들의 태도 등이 친구가 출국하게 된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

자 남아서 모든 시간을 견뎠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 14시간씩 일하였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게다가 동료들과 상사가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부을 때면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것 같다.

- 간증을 나눠준다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작은 교회의 장로였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녔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머물며 한 번도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었다. 한국어가 서투르도 매주 교회에 갔다. 어느 날 양쪽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일이 너무 많고,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럼에도 예배를 빠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통증 때문에 손목을 잡고 있었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며 내 양 손목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그러자 통증이 바로 사라졌다. 예배가 끝나면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자 그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신 것 같다.

-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나?

1994년 어느 날 최성규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은 나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등록금과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온통 비즈니스에 성공하여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 목사님의 음성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 큰 부담을 느꼈고, 답을 얻고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순조롭게 열리게 되었다. 최성규 목사님이 나를 많이 응원해 주셨다. 1998년에 공부 마쳐 이주민담당 전도사가 되었고, 2000년에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마치면서 교회 사역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다. 내 아내도 안양대학교(신학과)에서 공부하였고,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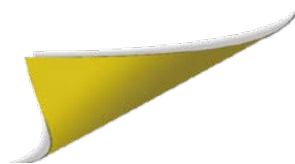
- 사역에 대해 소개해달라.

현재 인천순복음교회 지교회인 글로벌하모니교회를 담임하고, 글로벌하모니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카페 공간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내 고향 파키스탄에서 전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과 책자를 나누면 주변과 정부에서 위협을 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슬림들을 자유롭게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많은 힌두교인과 시크교인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는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주민선교는 이렇게 효과적이고 쉽게 펼칠 수 있는 사역이다. 나와 아내, 교인(봉사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간다. 어떤 때는 전도를 받던 무슬림들이 매우 위협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과 기도제목을 알려달라.

모든 교회는 선교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땅끝까지도 가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한국에 약 40개국의 선교지 사람들을 이주민으로 보내주셨다.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다가가 선교하여야 한다. 선교지로 가려면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주민에게 다가가기도 용이하고 선교도 효과적이다. 모든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나의 기도제목은 이 땅의 이주민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모두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또한 사역을 위해 9인승 이상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카페에 준비된 180석 좌석이 다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주님께서 예비하신 봉사자(차량운행, 영상, 악기, 찬양, 차세대 교육)들이 보내지기를 소망하며, 교회가 부흥하여 나라별(인도/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동남아 등) 독립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선한 이웃이 되어 함께 하는 선교, '다문화선교'

서울시 행정공무원 정년퇴직
온누리교회 시무장로
열방선교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사회 총무이사



글

임광순 장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다문화선교가 이 시대의 트렌드로 떠오르기는 하였지만, 그 현실은 초라하다. 나의 다문화선교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 대상의 이주민 사역과 결혼이주자 대상의 다문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약 10년 전인 2014년, 나는 온누리교회의 해외선교 중점적인 환경 속에서 찬양공동체 대표 장로로 오직 찬양사역만이 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다가 떠밀려 이주민선교를 하게 되었다. 당시 이주민선교는 내 눈에 '나홀로' 선교의 모습이었고, 지역교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외면 속에 있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처음 만난 내게 큰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와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다.

그러다 2014년 온누리교회가 이주민선교음악회를 개최한 이래로 경기북부 이주민교회가 연합하여 음악회를 6년 동안 지속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주민선교사들의 모임인 열방선교네트워크(창립대표 이용웅 선교사)가 결성되었다. 그동안 이주민선교음악회(년1회)를 중심으로 정기기도회(월 1회), 이주민선교포럼(연 1회), 선교교육(연 1회), 수련회(1~2회) 등의 활동을 해오면서 장소를 비롯하여 각종 후원을 해주었던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열방선교네트워크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북부 이주민선교의 시작점이었던 양주 예향교회 백성훈 목사님을 이사



▲ 모두가 하나 된 이주민선교음악회

장으로 하여 7명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사회가 되었다. 열방선교네트워크는 2022년 1월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단체로 등록하여 이주민선교 체제를 이루어 가고 있다.

앞으로는 경기북부 10개 시마다 2~3개 지역교회를 이사로 모시어 이사회를 확장하고, 지역교회를 이주민선교의 선한 이웃으로 만들어 이주민선교의 시너지를 이루고자 한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통해 1개 공동체와 1개 이주민교회를 결연하는 선한이웃사업(With Church/함께하는 선교)을 펼쳐왔는데, 지속적인 방문으로 예배·나눔·전도 등을 함께하는 선교의 모습이 이주민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역은 2016년 12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어느 목사님의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주일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온누리교회故 하용조 목사님이 주일에는 타 교회와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

하라고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토요청년예배(요셉공동체)에 의뢰하면서 다문화 주일예배가 시작되었다. 단순히 예배 지원에서 시작된 사역은 하랑센터라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센터로 확장되어 다문화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비전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각종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장학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양주진리교회 다문화어린이예배와 동두천의 아프리카 어린이들과도 연계하여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두천 지역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 다문화어린이 예배공동체로 나아가려 한다. 향후에는 경기북부 지역마다 다문화센터를 만들고, 선두 주자인 하랑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다문화 선교사역을 이루려 한다.

다문화선교는 이주민선교사들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지역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어 도와야 한다. 언어는 다문화선교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영어도 타민족 언어도 하지 못하지

만, 35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공직의 행정 경험으로 선교현장의 현황과 실태를 자료화하여 제공하고 사역을 디자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주민선교를 돕고 있다. 다문화선교는 다가가서 함께하는 선한 이웃으로 이루어진다. 이주민선교는 현장에 해답이 있으며, 그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주민선교사들의 필요를 도우며 선교사님들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그동안 열방선교네트워크의 모든 사역이 선교사들의 건의와 필요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선교는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선교는 한국교회의 과제이며 미개척지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주민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대한민국이 선교의 현장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다양한 이주민선교의 꿈을 꾸고 있다. 아니, 주께서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간다.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제8차 NCOWE 제1차 프리컨선테이션 열려...

6월 13~16일 평창서 열리는 제8차 NCOWE 준비 모임



▼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 제1차 프리컨선테이션을 개최했다. '다시, 그곳에서'(엡 2:10)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본 대회인 제8차 NCOWE를 약 10주 앞두고 진행한 이번 모임에서는 10개 트랙별 진행 사항과 향후 준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제8차 NCOWE 프로그램위원회(위원장 한철호 선교사)는 "이번 NCOWE는 각 트랙 주제에 따른 전문 사역자들이 트랙 리더로 활동하면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선교의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선교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같이 듣고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한다"는 대회 주요 방향에 따라, 각 트랙 리더가 사전 모임들을 통해 이를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KWMA 운영이사들은 각 트랙의 협력위원장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제안들을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0개 트랙 리더는 지난 1월 26일 첫 모임을 한 이후 2개월간 대면 및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기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으며, NCOWE 등록 신청을 한 참여자들과 4월부터 본격적인 사전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디아스포라' 트랙(리더 문창선, 노규석, 홍광표·협력위원장 황덕영)은 "디아스포라는 지구촌 시대의 핵심 현상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며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과 범주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음세대 선교동원' 트랙(리더 최읍, 김장생, 박성민, 김성화·협력위원장 여주봉)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청년대학생 사역의 현실에서 다시 그들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시대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 속의 선교단체' 트랙(리더 조샘, 김동화·협력위원장 설동주)은 "선교단체의 구조와 역할, 운영방식이 새로운 선교 생태계와 한국교회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본질적인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고,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트랙(리더 오일영, 김충만, 손창남, 윤마태, 이명준·협력위원장 김영휘)은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전환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텐트메이킹과 BAM' 트랙(리더 이대경, 김기석, 변대현, 이다니엘, 김경일, 이기성, 민흥기, 강평강·협력위원장 임경철)은 "일터 영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가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과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전방개척선교' 트랙(리더 주누가, 김요한, 이용웅, 공갈렘, 박미진·협력위원장 하재삼)은 "미전도, 미복음화, 최소 복음화 지역의 돌파와 자생적 교회 배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세계와 선교' 트랙(리더 박열방, 전생명, 박범, 박성준, 김승하·협력위원장 김찬곤)은 "사이버 세계와 신기술의 도전 과제 및 기회를 이해하고 글로벌 선교를 가속화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최적화하고 연결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심의 동반자 선교' 트랙(리더 홍경환, 주민호, 노태민·협력위원장 박정곤)은 "파트너십,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자생적으로 배가되는 교회개척, 선교사의 언행일치, 동반자 관계 등 내부자 중심의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변화하는 여성 선교사' 트랙(리더 조정희, 박보경, 윤성혜, 이선이, 이시은, 김미경, 권미미·협력위원장 이여백)은 "여성리더십 발굴과 조명, 선교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여성선교사의 역할과 위치를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학화' 트랙(리더 장창수, 안건상·협력위원장 윤영찬)은 "선교지에서 자신학화를 이루

도록 돕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있었으나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적 적용, 사역 연계 결과물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WMA 협동총무 정용구 선교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프리컨선테이션은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기도회에 이어 제8차 NCOWE 프로그램위원장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가 'NCOWE 2023 개요와 방향'을 나누고, 임태순 선교사(GLF·Global Leadership Focus 사역본부장)가 '세계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발표한 후 세계기독교에 대한 한국선교의 반응에 대한 토론을 했다.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는 이날 "이번 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대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확산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KWMA는 본 대회 이후에도 트랙 리더들이 후속 모임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KWMA 회원단체 대표, 선교사, 여성 리더, 청년 리더, 평신도 리더, 선교학 교수 등 선정된 초청자 600여 명이 참여하게 될 제8차 NCOWE 대회에는 3월 31일 현재 366명이 최종 등록했으며, 트랙별 1지망, 2지망을 받고 있다. KWMA는 초청장을 받은 예비 신청자들이 등록비를 입금한 뒤 각 트랙 사전 모임에 신속하게 연결되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8차 NCOWE 홈페이지는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다시, 그곳에서 (엡 2:10)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II)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일시
2023.6.13화 - 16금

장소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숙소: 인터컨티넨탈 & 홀리데이인 호텔

교회가 한국선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탐임목사님 100명을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 초청합니다.

법인이사장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대표회장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최남수 목사
(의정부광명교회)

이재훈 목사
(운문리교회)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정감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10개 트랙별 발제자와 라운드테이블 토의가 있습니다.**

주제

- 선교와 거룩 (Mission and Holiness)
-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의 역할 (Korean mission in World Christianity today)
- 선교의 전방 영역 재이해 (Frontiers in Mission)
- 실천적 대안 (Best practices)

초청 규모

목회자,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 선교학 교수, 여성, 다음세대, 평신도 리더 등을 균형있게 초청합니다.

등록 절차

- 참가신청서 작성 → ② 초청장 발송 → ③ 참가비 납입 → ④ 등록 확정

(제한된 숙소와 라운드테이블 전략회의 구성으로 영역별로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초청방식으로 등록이 진행)

신청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wma.org

문의

대표 1833-3110 / ncowe@kwma.org
협동총무 정용구 목사 010-2109-0009

주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이사장 이규현 목사, 대표회장 주승중 목사

한국이 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크리스 목사
순복음국제교회(PGIF) 담임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덕파르 목사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크리스 목사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2008년부터 한국에서 영어권 외국인들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목적은 나사렛대학교와 건신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선교 프로그램과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함이었고, 현재는 아내와 한국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함께 이주민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 활동은 안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안산에서 2년간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후에는 평택으로 건너가 5년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평택 기지 주변의 외국인들을 섬기고 사회에 봉사했습니

다. 영어권 외국인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영혼과 영적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파주, 동두천, 의정부, 양주, 서울,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의 도시를 다니며 부흥회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순회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한국이 저의 선교 현장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어 광주광역시로 건너가 2014년에 순복음국제교회(PGIF)를 설립하고 목자 없이 흩어진 양과 같은 하나님의 이주민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순복음국제교회 펠로우십은 10개 이상의 국가와 문화에서 온 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가족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다섯 명의 일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자씨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대부분 빈자리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확신대로 성도들이 몰려와 교회가 힘 있게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했고, 몰려오는 이주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순복음국제교회는 5명에서 시작해 40명의 성도가 참석하는 점진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영어 교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한 미국, 카메룬, 가나, 케냐, 한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보츠와나, 부룬디, 동티모르,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네팔 등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양한 문화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세계의 곳곳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직면한 아프리카 학생들과 이주민을 돌보

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고, 건강보험이나 돈이 여의찮은 이주민은 문제가 생기면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최선과 열정을 다해 그들을 돕고 더 나아가 제자화하는데 힘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주민들이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온 이후로 저는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다하는 데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이주민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이주민 교회와 사역에 대한 영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각 나라에서 이주민을 한국으로 불러오고 계신 것을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눈으로 보고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기업가, 헌신된 신앙인 다이히만



이성춘 선교사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

필자가 독일에서 매월 한 번씩 조찬과 성경공부를 겸한 목회자 기도모임에 참석할 때면, 모임 장소인 목사관의 입구부터 이층 계단까지 신발로 가득한 것을 보며 늘 드는 생각이 있었다. 목사관에 사는 사람들이 걷기용, 달리기용, 잔디밭용, 실내용 등 다양한 맞춤형 신발을 가족 단위로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가족은 필수적인 신발 몇 켤레로 생활하였기에 가족의 처지가 함께 떠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자존감을 지켜준 한 신발가게가 있었다. 아이들이 신발이 필요하다고 조를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아가던 '다이히만'이라는 가게였다.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한 켤레의 신발만 살 수 있는 돈으로 질 좋은 신발을 두 켤레나 자녀에게 선심 쓰듯 사줄 수 있었다. 다이히만은 우리 가족에게 참 좋은 신

발가게였고, 우리는 20년이 다 되도록 다이히만의 장기고객이 되었다.

가게의 주인은 '하인츠 호르스트 다이히만(Heinz-Horst Deichmann)'이란 사람이다. 그분은 지난 2014년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부모님에게 가게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품질 좋은 신발을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으로 가게를 운영했다. 다이히만 신발가게는 독일에서 크게 번창하여 세계적인 신발가게가 되었다. 다이히만은 1977년에 '말씀과 행동(Wort und Tat)'이라는 선교 봉사기관을 조직하여 인도, 탄자니아, 몰도바, 그리스, 독일 등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 20만 명이 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런 그도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다. 본인이 세운 선교단체를 통해 해외에 자금을 유출한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현지까지 가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다이히만은 정말로 정직하고 바른 기업인으로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며 선교

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다. 다이히만과 그의 경영자 가족은 수년 동안 선교단체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난민을 위한 긴급구호에 백만 유로를 지원했고, 이라크 난민촌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 섬 레스보스에서 긴급하게 요청한 겨울나기 주택·샤워장·세탁실·공동우물 등을 설치해 주었다. 또한 생필품과 의료 진료, 무료급식 등을 공급하였다.

다이히만의 본사가 있는 에센(Essen)에는 60명 정원의 언어·직업훈련원이 운영되어 3단계에 걸친 언어훈련과 도색 작업, 원예, 농사, 집안일 등의 직업훈련을 6개월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난민들이 새로운 문화에 올바르게 정착하고 작업현장에서 그들의 진료와 직업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이히만은 자신의 물질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고백한다(2008년 인터뷰). 그는 또한 "나는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부자가 아니라, 나

의 돈을 하나님의 일에 지출하기 위한 부자"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기업가의 삶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는 질문보다,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파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다이히만 신발기업은 다이히만이 생존했던 2013년도 한해에만 유럽 23개국과 미국에서 1억 6천 7백만 켈레의 신발을 팔았다. 2014년에는 49억 유로라는 최고 실적을 갱신하기도 했다. 다이히만의 경건한 삶의 자세와 청렴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실천적인 삶은 다이히만 신발기업을 이어받은 아들 하인리히 다이히만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를 이어 신앙을 지키며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다이히만의 가족과 기업은 세계의 모든 기업인들과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었다. 신실한 기업가, 헌신된 신앙인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온 이주민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NON SIBI', 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마이 전도사
(사)올프렌즈 통역 사역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으며, 현재 사단법인 올프렌즈에서 캄보디아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비전 없이 평범하게 살던 제가 변화된 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소금과빛국제학교를 다니면서부터입니다. 소금과빛국제학교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기독교 학교로,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모든 교육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소금과빛국제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와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은 저로 하여금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소금과빛국제학교가 강조하는 교훈은 'NON SIBI'입니다. 이는 'Not For Self', 즉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교훈을 통해 나누고 배려하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또한 이 교훈을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캄보디아 아동을 대상으로 사역하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21년 3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2년간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에서 전문인선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국적의 학

생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술전공으로 아동복지를 함께 배우다가 올해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전주 더온누리교회·전주온누리교회 MVP선교회·국제협력기술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는 안양 산소망교회에서 숙소를 제공 받아 카메룬 출신의 자매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올프렌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프렌즈는 이주노동자(캄보디아, 베트남)와 결혼이주민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저는 올프렌즈에서 주말마다 캄보디아어 통역사로 일하며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국인 SNS기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사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한국 동역자들과 함께 'NON SIBI'라는 뜻을 가지고 국내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이나 앞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올프렌즈 캄보디아 전통 설날(4월) 행사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ti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하나님의 다민족·다문화 디아스포라 선교 계획은?"

안성호 고든대 교수, 2023년 제1차 로잔 선교적 대화서 강의

고든대학교 안성호 선교학 교수(OMF 선교사)는 한국로잔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 2023년 제1차 로잔 선교적 대화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이다"라며 디아스포라와 난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도전을 전했다. 본지는 안 교수가 '디아스포라 신학: 흩어진 파종을 받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전한 강의를 두 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선교(mission) vs 선교들(missions)

안성호 교수는 디아스포라 신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며 "첫째 사랑의 공동체의 하나님(community)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온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둘째 선교의 하나님(mission)으로, 성자와 성령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다"라며 "성자와 성령은 이 땅의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 정체성으로 보냄 받아 모든 민족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교사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셋째 디아스포라의 하나님(diaspora)으로, 성자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었지만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람어를 사용하시고 유대인이 되셨다"라며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은 '가시적인 오른손'으로 사람들을 '파송'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우리를 '파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살고, 또 헤롯 왕으로부터 피신해 살아가신 난민이셨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 가지 더 있다면 다양성과 연합성(unity and diversity)"이라며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 같지만 철저히 연합되어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성이 있고, 이 다양성 안에 연합성(unity)이 있어,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연합성은 다르지만, 철저히 연합된다. 연합성 안의 다양성, 다양성 안의 연합성(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호 교수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와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스스로 선교(mission)를 행하시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 놀라운 특권인 선교들(missions)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참여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선교를 이루어나가

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작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큰 선교(God's Mission, Missio Dei)에 동역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란에서의 무슬림 사역 경험을 전했다. "이란에서 비거주 사역을 할 때 이를 악물고 무슬림을 위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이미 그 안에서 일하시고 이란에 지하교회를 놀랍게 세워나가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며 "단지 저는 선교에 참여할 뿐이지 제가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안성호 교수는 또한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doing) 이전에 보냄을 받은 것을 인지하는 것(being sent), 곧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며 "선교사는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a sent one)이다. 그러면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a sent people group)으로, 이 선교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요 20:21)하신 점을 언급하며, 파송(Sending)과 파종(Scattering, Diaspora)의 두 개념도 소개했다. 안 교수는 "파송은 자발적, 의도적, 의지적인 것이고, 파종은 비자발적, 비의도

적,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비인지적으로 오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파송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파종은 처음에는 (보냄 받음을)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체성이 생긴다.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은 '가시적인 오른손'으로 사람들을 파송으로 보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는 파종으로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파종시킨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바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선교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는 교회도 맞지만,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파종(보냄) 받은 선교적 정체성을 깨워주는 리소스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다민족, 다문화 선교

안성호 교수는 "성경 해석의 보편적인 세 관점인 구속적 관점, 언약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함께 선교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합해서 볼 때 성경은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내러티브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교적 관점만 따로 떼어놓고 성경을 보면 연역법적 해석이 된다"며 "선교의 렌즈를 끼고 선교에 관련된 구절만 추출해 내서 성경이 선교를 이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계획, 첫 번째 계획은 먼저 복 주시고 흠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는 것"이라며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복을 주시고 땅에 가득하라(창 1:28)고 하신 것은 흠어져서 복을 나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출하신 다음 다시 복을 주시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창 9:1)고 하신다. 디아스포라가 되라는 것"이라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야벳'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goy, ethnos, ethnolinguistic groups)이 흠어지게 된다(창 9:18~19)"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종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야벳의 후손들 14개 종족(창 10:2~5), 함의 후손들 30개 종족(창 10:6~20), 셈의 후손들 26개 종족(창 10:21~31) 등 총 70개 종족으로 흠어지면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계획을 다시 복구시키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날 땅에 정착한 셈 종족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창 11:1~4). 안 교수는 "바벨탑은 단수가 아니라 시날 전체에 퍼져있는 복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라크의 지구라트 성전들이 바벨탑의 흔적이 아니냐고 학자들은 말한다"라며 "인간이 하나님의 '흠어지라'는 디아스포라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시 흠으셨다(창 11:5~9)"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로서

그들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복귀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의 붕괴 사건은 인류의 위대한 대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바벨탑 이전 인간은 단일 문화에 단일 종족, 단일 언어, 단일 지역이었고 정착민이었다면, 바벨탑의 붕괴로 인해 다문화, 다종족(70개), 다언어, 다지역,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며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비가역적인 것으로, 인간은 디아스포라 역사로 바뀌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는 다민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바벨탑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며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탑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원하시지만, 많은 교회가 여전히 바벨탑 이전 패러다임으로 사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브라함 공동체는 선교적 디아스포라 다민족·다문화 공동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공동체 역시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안 교수는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디아스포라를 위해 디아스포라가 되라고 하신 것(Be Diaspora to save Diaspora)"이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준 복(blessings, 바라크)을 나누라고 하시고, 약속의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신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바벨탑 사건(창 11)과 아브라함(창 12:1~3)은 굉장히 대조된다. 바벨탑은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인류의 구속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적 디아스포라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로 빚으셨다"라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속한 갈대아인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앓시리아, 우르, 아카디아가 섞인 혼합민족이었고, 하란으로 가서 헷족속을 얻고, 다마스쿠스에 가서 다마스쿠스인을 얻으며,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인이 합류하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75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브라함이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낳아 20세 이상 훈련받은 사람 318명(창 14:14)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는데, 최소 3천 명의 거대한 공동체로 보인다. 이는 철저하게 다민족, 다문화 선교적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할례'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 할례였다고도 했다. 안 교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할례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이신칭의, 창 15:6, 롬 4:11~12)하셨고 이름을 '아브람'(유대인의 아비)에서 '아브라함'(모든 민족의 아비, 창 17:4~5)으로, '사래'는 '사라'(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셨다"라며 "그다음 비로소 유대인뿐 아니라(창 17:9~13), 모든 민족에 할례를 주셨다(창 17:9~13, 23~27). 아브라함에게 주는 할례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의 혼혈아인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이방에서 온 모두가 할례를 받았다.

그는 "모든 민족을 위한 선교적 할례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속과 언

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언약, 구속적 관점을 통폐합해서 선교적 관점을 재조명할 수 있다. 즉 할례는 다민족, 다문화를 축복하는 언약과 구속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고 언약받았고, 70개 종족을 축복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교적 언약이 계승되어 이삭에게도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all nations)이 복을 받으리라'(창 26:4)고 하였고,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all people)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창 28:14)고 하셨다. 요셉 역시 '각국 백성(the people of all the earth)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창 41:57)에서 볼 수 있듯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7년 대환란 때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안 교수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교적 DNA, 디아스포라의 DNA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흘러들어왔다"라며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해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축복한 이유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가나안 땅을 축복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이다"라며 믿는 자들이 특수성(Particularity)과 선민의식(prosperity gospel)에 빠지고 번영신학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선민의식에서 반드시 패러다임 쉬프트 하여 보편성(Universality)과 선교 의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함이다"고 거듭 역설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lightlaw.com
www.dl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

윌버트 쉐크(Wilbert R. Shenk)의 선교적 목회론을 중심으로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교수

글

정승현 교수

본고는 정승현, "윌버트 쉐크(Wilbert R. Shenk)의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 선교학에 관한 연구," 「선교신학」 58(2020): 319~346을 기초로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윌버트 쉐크(Wilbert R. Shenk, 1935~2021)는 현장 선교사, 선교 행정가 그리고 탁월한 선교역사 학자로서 서구에서 명망이 높다. 그는 1955~1959년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고, 귀국 후 메노나이트 선교회 본부에서 선교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총장(1967~1980년)과 부회장(1980~1990년)을 역임했으며, 동시에 미국선교신학회(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ASM)의 창단 멤버의 한 명으로서 사무총장과 회계(1979~88년), 부회장(1992~94년), 그리고 회장(1994~95년)의 역할을 감당했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역사 교수로 봉직했던 쉐크의 학문 분야는 실로 방대하고 심오하여 그의 저술목록을 2007년까지로 한정해도 A4용지 15쪽에 이른다.

특히 쉐크는 1990~1992년에 뉴비긴(Lesslie Newbigin)과 함께 영국의 The Gospel and Our Culture(GOC) 프로그램에 관여했는데, 이 모임은 후에 북미의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GOCN)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쉐크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에 잠식되어 있는 서구 교회가 반드시 그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목회신학은 선교적 목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고에서는 이 쉐크의 선교적 목회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에서 적합한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쉐크의 선교적 목회론

선교가 부재했던 크리스텐덤 시대에 일반적인 목회는 선교와 무관하게 이 행되었다. 쉐크는 서구의 전통적인 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구 크리스텐덤(Christendom)에서 지역 교회 목회자의 고전적 역할은 대부분 교인의 양육과 교구 생활의 유지에 집중되어 왔다. 교회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양-우리(sheep-fold)'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 목자로서 지역 교회의 목회자 이미지는 교회 역사에서 사랑받아 왔다. 이 이미지는 목회 사역을 양떼의 행복을 관찰하고 돌보며 지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근대(modern)의 목회 사역은 진화하고 확장되어 오늘날 교회에는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기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소비주의를 조성하고 내적인 자기-중심성(self-focus)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분명히 교인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지만, 결코 그 자체가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¹⁾

이러한 크리스텐덤 시대의 전통적인 목회가 여전히 서구의 주류(mainline) 교단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서구의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이러한 목회를 뒷받침하는 목회신학이 교육되고 있음을 쉐크는 지적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구 선교 지도자들은 선교가 오직 서구 '밖에서' 이행되고, 이 임무는 특별히 부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전제가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구 '안에도' 이민자들을 비롯한 타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에 적합한 목회론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쉐크는 요한복음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주목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로 묘사한다. 요한복음에는 "보냈다(sent)"라는 단어가 41번 나타난다. 다시 강조하면,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부활 이후 극적인 만남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b). 이 명령은 우리 사교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선교를 규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안에서 선교가 태동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모든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빛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우리가 누구인지)과 부르심(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의 보내심(sent-ness)은 교회의 모든 교인을 보내는 것(sent-ness)이 된다(요 20:20~22). 교회가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려면 이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신의 역할로 인해 도전을 받을 것이다.²⁾

선교적 목회는 서구의 전통적인 목회신학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돌보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다. 예수께서 신약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였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오직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확립된다. 즉, 선교적 목회는 서구의 전통적인 목회신학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갱신하는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III. 선교적 목회의 모델로서 레슬리 뉴비긴의 사역

쉐크는 선교적 목회의 구체적인 모델로 뉴비긴이 인도 첸나이(Chennai)에서 1965년부터 1974년에 은퇴할 때까지 현지 지도자를 양성했던 방식을 들었다. 뉴비긴은 성경을 중심으로 첸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운탁 박광운 옥치안 이흥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재,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나이의 현지인 지도자들이 당시 힌두교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양육했는데, 그 결과물이 'The Good Shepherd': Meditation on Christian Ministry in Today's World이다. 특별히 14장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뉴비긴은 쉥크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단지 들판에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양들로 대우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기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양들이 목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막 3:14)...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목회 사역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훈련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³⁾

뉴비긴은 성경말씀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양면을 공히 설명했다. 뉴비긴은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현지 교회의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목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약성경에 근거하여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권면했다. 더 나아가서 뉴비긴은 사역자가 무엇을 위해 안수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도록 안수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역을 위해 훈련받도록 안수 받은 것이다. 우리 사역에 대한 평가는 얼마큼 우리의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지와 연관되어 있다."

뉴비긴은 목회자의 평가를 얼마나 교인들을 잘 돌보는지에 두지 않았다. 대신 뉴비긴이 목회자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실제로 뉴비긴은 새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마을로 보냈다. 준비된 중직자들만을 보낸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냈던 것이다.

새롭게 세례를 받은 회심자들은 각각 그 정해진 기간 후에 그들 이웃 마을로 건너가 그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 그들의 이웃들과 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이 준비기간을 잘 마치고 교인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권리가 허락되면, 그들은 준비했던 이웃 마을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을 갖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복음전도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기독교 훈련의 기본요소가 되어야 한다. 가장 복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첸나이(Madras)와 같은 도시에서 정부, 사업, 그리고 전문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들이 세속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안수에 포함되어 있다.⁴⁾

종합하면, 쉥크의 선교적 목회는 서구의 전통적인 목회신학과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차별화된다. 첫째, 선교적 목회는 교회 내적으로 자기-중심성(self-focus)을 증진시키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동시대를 선교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라보는 지역 교회의 선교사를 훈련시킨다. 둘째, 선교적 목회는 모든

교인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시킨다.

IV. 맺는말: 한국의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에 적용

쉥크는 서구 교회를 에스겔서의 마른 뼈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생명력으로 넘치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이를 일으킨다고 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주민 사역자들에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주민 사역자들에게 이주민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역자로 준비시키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쉥크는 비서구 지역에서 오히려 선교적 목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중남미의 지도자들이, 특히 에스코바(Samuel Escobar), 빠딜라(René Padilla), 그리고 코스타스(Orlando Costas),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선교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쉥크는 서구 기독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잊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교회는 반드시 소수자의 입장에서-그리고 흔히 주변인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과업을 감당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국가에서 교회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주민 사역자들은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할 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을 경험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이주민 사역자들도 여타 기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질과 리더십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주민들을 돌보는 동시에 파송의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주민 사역자들은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특별히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방 중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비주류의 위치에서 삶을 살았다. 초대 교회는 언제나 로마제국에서 소수 중의 소수였고 흔히 심각한 멸시와 박해를 받았다. 오늘날 이주민들도 여러 면에서 한국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역자들은 그들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 Wilbert R. Shenk, "Pastoral Missiology: Introduction," 정승현 역, "목회 선교학: 서론," MC586/MK703 Pastoral Missi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reading material, 2019.
2) Ibid.
3) Lesslie Newbigin, 'The Good Shepherd': Meditation on Christian Ministry in Today's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1977).
4) Ibid.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SUFI CORE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PROGRAMS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과 이슈 (2)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의 3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도전 I'을 요약하였으며, 지난 호에 이어서 유럽의 경우를 들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도전과 이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유럽의 재선교 이슈, 둘째는 교회가 직면한 디아스포라 이슈가 그것이었다.

셋째로, 이민(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필자가 처음으로 디아스포라가 선교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유럽에서 이란 난민들과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이란 사람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유럽과 북미에 난민으로 정착하여 살았다. 이란에는 지금도 58여 개의 종족 언어가 있으나 기독교 선교사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성경 번역은 디아스포라 종족들과 국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20여 년 동안 유럽대륙에 흩어진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종족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출판할 수 있었다. 이 번역 사역은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영국 침례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이란 현지인 선교부 등이 함께 동역한 아름다운 열매이기도 하다. 다른 이민 종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사역을

통해 인간을 흠여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러한 디아스포라 자원이야말로 마지막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이민은 선교의 방향 표지(Avenue)이다.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민이 새로운 선교학적 이슈인 것을 그의 다양한 기고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교회성장 운동의 핵심 원리인 '동족 단위의 복음화(Homogenous unit principle)'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믿음의 복종(The Obedience of Faith)>이란 책에서 로마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폴 미너(Paul Minear)의 통찰을 소개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제국은 거대한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면서 바울과의 교회 사역 동역(롬 16)이 시작되었다. 근자에 와서도 개신교의 성장은 해외로 이주한 개신교도 그리고 본국의 교회들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도 대형교회의 리더십 영역에 해외 이민 교회에서 성장한 사역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국의 개신교도가 대거 해외로 이주하면서 거주 국가의 개신교 성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복음의 메신저로서 다른 문화 속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 표현은 거주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신약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의 기독교 성장은 이민·디아스포라의 결과인 것을 교회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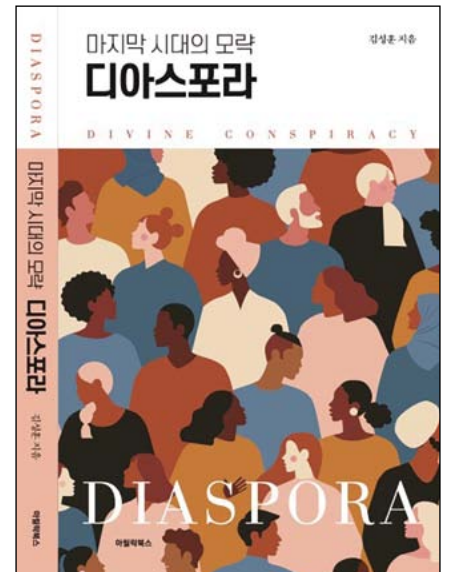
다섯째, 이민은 선교학적 질문을 제

기한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로 구분된 다섯 개의 다른 가정교회를 언급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용납할 것을 요청한다. 오늘날 디아스포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문화와 종족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형제, 자매를 포용하는 교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다.

많은 현장 관찰 기록에 따르면 다민족 환경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명백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침례교, 오순절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먼저 이민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교회다. 또한 이방인과 도시 빈민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개신교의 상황적 본질(contextual genius of Protestantism)에 대한 이해는 목회와 선교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소수민족 프로그램으로 이름 붙인 다중문화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즉 모어를 구사하는 사역자를 세우고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동체를 만듦으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는 상황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관찰에 의하면 이민자 교회는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한편 거주 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체로 종족의 정체성과 거주국가 문화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동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보이는데, 긍정적으로는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어 안정



적으로 정착하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종족 공동체에 머물러서 사유화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본질로써 선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디아스포라는 제도적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과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 등을 통해 교회는 일차적으로 이방인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를 제시하며 기존의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민·디아스포라는 지역교회에 선교적 비전과 열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며 더 나아가 교회로 하여금 타문화에서 온 이방인들을 주님이 그러하셨듯 친절하게 환대하는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된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포토 갤러리



▲ 송도 글로벌하모니교회 공동체와 카페 공간 (3면)



▲ 경기북부 이주민교회가 연합하여 주최한 이주민선교음악회 (4면)



▲ 광주광역시 순복음국제교회(PGIF) 이주민 공동체 (6면)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롱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이주민 어린이들을위한 도서관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NCOWE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Rethinking Korean Mission in World Christianity Today and Beyond

다시, 그곳에서 (엡 2:10)

일시

2023.6.13 화 - 16 금

장소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